

나혜석 소설 「경희」의 담화론적 연구

안 숙 원*

1. 예술의 틀짜기와 삶의 틀 부수기
2. 「경희」와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
3. 맺음말

초 록

본고는 나혜석의 소설 「경희」에 대한 담화론적 연구이다. 지금까지 나혜석과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실증적 역사 전기비평·반영론·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페미니즘 비평은 텍스트를 이젠 좀 정치(精緻)하고 세련되게 읽을 때도 되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과격하고 범박한 상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문학의 사회과학화나 심리주의 편향의 외재적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꼼꼼하고 다양한 방법론적 읽기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문학작품도 결국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을 전제로 한 언술행위인 것에 주목하고 나혜석이 「경희」를 통해서 보여준 담화의 언행양식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더욱이 나혜석처럼 소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논설을 쓰고 소설조차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 계몽주의 작가의 경

* 인제대학 강사.

* 본고는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1999.4.27. 수원 나혜석기념사업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우, 소설 장르의 어떤 측면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느냐가 담화방식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담화의 특징은 앎-모름의 위계질서상 교화자가 '앎(知)'의 위치에서 피교화자인 무지한 대중을 깨우치려고 하였다면, 나혜석은 타자의 계몽에 덧붙여 자기 다짐이란 담화논리로 남성중심 사회의 반페미니즘 역풍과 신여성성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했다. 당대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춘원의 민족개조론보다 나혜석의 신여성론이 덜 위선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경희」 역시 신여성 우위의 **교훈성** 담화이지만 인물들의 논쟁을 통한 정보전달의 간접화에 의해 노골적 설교투가 아닌 간접설득의 **계몽효과**를 거둔 것이라든지, 가정내적 사건의 생생한 묘사, **능숙한** 일상어의 구사로 긍정적 신여성의 입상화에 성공한 것이다.

1. 예술의 틀짜기와 삶의 틀 부수기

나혜석(晶月, 羅惠錫 1896~1948)은 근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문학의 단초를 열었던 작가로서 현재 여성 문학도들에겐 백년의 시차를 두고도 극복 못한 여성 정체성의 신화적 존재이다. 그것은 그녀가 갈등했던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오늘날도 여전히 여성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항담론(counter-discourse)을 그녀는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개화기 지식인다운 선각자 강박관념과 신여성(New Woman)¹⁾ 의식은 솔직하고 강한 개

1) R. 펠스키는 20세기 초 신여성은 반항을 불러 일으키는 해방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며 이때 신여성이 표상하는 근대성은 지금 있는 현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안적 미래를 꿈꾸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Rita Felski,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페미니즘』, 거름, 1998, p.40). 우리나라의 경우, '신여성'은 개화기 신교육으로 획득한 자아 각성을 기반으로 가부장제적 도덕규범에 도전하여 여성의 성적인 해방을 주장한 여성을 의미한다(김양선, 「'신여성' 드러내기의 두 가지 방식」,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p.102).

이는 엘렌 케이의 신여성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녀관계에서 연애의 중요성과 모성과 이동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당시 신여성으로 자처한 여성들이 성적 방종으로 성 해방에 더 열중한 것이다. 그 때문에

성의 소유자로 예술가의 자유분방한 기질과 더불어 시대와의 불화를 초래하는 필연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당대로선 드물게 여성으로 일본 유학에, 부부동반 해외(유럽·미국) 여행까지 경험한 터였으니 인습적 사회의 굴레는 그녀를 더욱 답답하게 했을 것이다.

모랄리스트로서 나혜석의 삶의 틀 부수기는 부인 의복 개량 문제, 위생관념 같은 실생활에서부터 인습적 각종 제도 개혁, 여성의 정조에 대한 남성의 이중성,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남성의 이기심, 부부생활의 평등, 성 해방, 여성의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가부장사회의 여성문제에 고뇌하던 그녀는 “절규함이 20C 여성의 무대”²⁾라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나혜석의 화려한 이력과 극적인 삶이 워낙 스캔들로 점철된 탓인지 그녀에 관한 기존 논의는 예술과 삶의 틀을 넘나드는 경계 침범의 언술이 많다. 그리하여 나혜석 연구는 그녀를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³⁾로 보고 부르주아 계몽주의,⁴⁾ 여성해방론자,⁵⁾ 위악적 에로티즘⁶⁾ 따위 역사 전기적 비평이거나 반영론,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비평의 안목에서 이루어졌고 그런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⁷⁾ 하지만 삶의 복사본으로 예술을 대체하려는 것은 예술과 삶 모두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

‘신여성’은 근대적 개인다운 여성의 역할보다 자신의 성적 방종을 합리화하는 허위이식의 소유자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2)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공사, 1974), p.43.

3) 서정자, 「여성주의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업적들」, 『한국여성소설 선』 I (갑인출판사, 1991), p.286.

4) 이상경, 「가부장제에 맞선 외로운 투쟁」, 『수원예술』(1999.1), p.65.

5) 정영자, 「나혜석의 시 세계」, 『한국여성시인연구』(평민사, 1996), p.74.

6) 이호숙, 「위악적 자기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p.87.

7) 그 밖에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연구」, 『비교문학』 제20집(1995), 정순진에 의한 나혜석 「경희」 담론분석이 이광수의 「윤광호」와 비교대조된 연구도 있다. 정순진, 「정월 나혜석의 초기 단편소설고」, 『한국문학과 여성주의비평』(국학자료원, 1992).

다.⁸⁾ 왜냐하면 예술작품을 하나의 기호체계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틀(frame) 곧 경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틀이 없는 풍경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틀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시점의 전이에 의해 새롭게 인식된다. 문학작품의 틀을 가리키는 형식적 장치가 시점이며, 내용 국면에서도 소설은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 인물의 성격 규정(characterization) 따위가 틀짜기에 관여하는 요소들이라 하겠다.

나혜석이 근대작가라면 이러한 소설의 틀짜기에서 그 특징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흔히 근대문학을 얘기할 때 예술의 근대성보다 이념의 근대성 혹은 문학에 반영된 사회의 근대성을 거론하는 수가 많은데, 예술의 근대성은 서양화에서 원근법(perspectivism)이 르네상스 이후 나타나듯 작품 자체의 내재적 특질을 통해 발견되는 형식의 새로움이다. 소설에서의 그것은 서사기법이라든가 문체의 변화 따위를 들 수 있다. 나혜석 소설 「경희」의 경우 ① 다양한 시점의 빠른 교체, ② 경쾌하고 발랄한 대화에 의한 문체의 탄력성, ③ 보여주기(showing)로 미메시스적 진술 ④ 얘기 시간(discourse time)이 얘기된 시간(story time)보다 길어 묘사에 치중한 점, ⑤ 현재시제에 의한 서사의 직접성, ⑥ 간접적 계몽방법, ⑦ 여러 인물들의 발화를 통한 모티프들의 수렴에 의한 주인공의 성격 규정(characterization), ⑧ 여성의 가정내적 일상적 경험의 꺾어진 묘사 등에서 지금 읽어도 신선한 감동을 준다.(이에 대한 검증은 다음 장에서 하겠다.) 물론 이런 것이 나혜석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1910년대라는 특정 시기, 다른 작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예술작품이란 당대의 문학적 기대지평에서 평가되어야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선형적 원리에 기대어 재단할 수는 없다. 특히 나혜석처럼 소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논설을 쓰고 소설조차 지배 담론에 대항하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했다면 그와 같은

8) Boris Uspensky, 김경수 역, 『구성의 시학』(현대소설사, 1992), p.243.

공리주의 문학관이 소설의 어떤 면에서 나혜석에게 도움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논설로 쓰지 않고 소설로 쓴 것은 그녀가 소설의 존재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⁹⁾ 소설은 작가의 대리인인 서술자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담화이며 담화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 곧 시간·공간 속에서 일어난 예술행위로서 연행(performance)인 것이다.¹⁰⁾

소설담론의 속성상 텍스트는 우리 앞에 놓인 완결된 자족체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기다리는 의미생성체라는 것이 담화론적 입장이다. 이 같은 담화론은 서술자의 가치체계를 원격조정하며 실제작가와 작품의 서술자를 연결시켜 주는 세계관¹¹⁾으로서 작품과 작가를 별개로 논의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

2. 「경희」와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

담화론적 독해는 소설 텍스트를 일련의 소통을 위한 발화행위로 보고 작품을 발화자와 수화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대화는 발화자의 의도·메시지만만 아니라 수화자의 수용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선택, 변용시

9) 나혜석의 수필 가운데 소설적 결구를 가진 것도 있다. 「젊은부부」(월간 『대조』, 1930.7) ; 「나의 여교원시대」(『삼천리』, 1933) ; 「이성간의 우정론」(『삼천리』, 1935.6) ; 「충석정해변」(『월간매신』, 1934.8) 따위는 단편소설의 구성과 재치가 돋보인다.

10) Mary Louise Pratt, *Toward a Speech Act Theory of Literary Discourse*(Indiana Univ. Press.1977), p.81.

11) 이때 “세계관”이란 텍스트 속 주체들의 인식체계로 영미 뉴크리틱스들은 이를 읽기의 의도적 오류(intentional fallacy)라 하여 경계했으나 담화론은 형식주의와 사회학적 방법을 포괄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진 않는다. 다만 의도적 오류가 시대정신·주체의식 같은 것을 덮어씌우기식으로 읽기 쉽다면 담화론은 텍스트의 조직성에 유의하여 그 조직성 속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맥락(context와 co-text)을 강조한 데서 나온 발화전략임을 덧붙여 둔다.

켜 결합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제 혹은 지배하는 것이 담화론이다.¹²⁾ 결국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내포작가와와의 대화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서사담론의 진정한 의미도 내포작가와 내포독자의 수용력 사이에서(대화적 관계) 형성된 그물에서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담화론적 연구는 ① 실제작가의 세계관, ② 내포작가의 세계관, ③ 서술자의 세계관, ④ 인물의 세계관 층위에서 서로 일치하거나 상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때 텍스트의 의미생성 방식인 담화논리가 드러난다는 입장이다. 가령 내포작가와 서술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는 서술자가 인물을 제시할 때 보여주는 일관성의 결여 부분인데, 이는 서술자의 논리가 내포작가의 논리와 다르다는 증거이다. 또 내포작가의 세계관이 단적으로 잘 나타나는 곳이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금언·속담 인용, 초점자의 의식 재현 부분 등으로 그것은 등장인물이나 서사 전개를 동기화(motivation)하고 담화 전개에 필진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¹⁴⁾ 요컨대 구조주의가 텍스트 내재적 구조의 연구로 가치 배제적이라면 담화론은 그런 구조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 인식체계와 관련되어 있어 텍스트 의미 생성의 양식은 물론 가치의 선택과 배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요컨대 문학에 대한 형식적 방법과 사회학적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화용론적 방법이 담화론이다.¹⁵⁾ 화용론은 발화에 관해 그 표층적 자질에서 뿐 아니라 발화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해 얘기하는

12) 여기서 '대화'란 일반적 대화와는 다른 의미이다. 일반대화는 화자, 청자 사이의 양방향행이란 적정성의 조건을 갖지만 소설은 내포작가에 의한 서술자의 일방적 의사전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적 대화의 소통상의 특징이며 적정성의 부재를 떠맡는 것이 소설담화에 tjssms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장르적 특성인 서사성이다(김현, 『현대소설의 담화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5, pp.13~14).

13) 김현, 『『무정(無情)』의 담화론적 연구』, 『서강어문』, Vol.9(서강어문학회 1993. 12), p.245.

14) 김현, 앞의 책, p.209.

15) M.L. Pratt. p.xix.

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발화의도, 태도, 발화 참여자의 예상, 참여자간의 관계, 발화 뒤에 숨겨진 규범과 관습 등이 발화가 이루어지고 받아들일 때 이해되는 것 따위이다.¹⁶⁾

그렇다면 나혜석 소설의 담화논리는 무엇인가. 나혜석 소설은 가부장사회에서 갈등하는 여성문제의 인식과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로써 여성해방의 당위성을 촉구한다. 곧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의 대비를 통해 내포작가의 당위론적 세계관이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로 드러난 것이다. 나혜석에 관한 기존 논의가 주로 그녀의 계몽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담화론적 독해는 나혜석이 남을 깨우치고 교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아발견, 자기 다짐에도 있었음을 밝혀준다.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는 앎-모름의 위계질서상 ‘앎’(知)의 위치에서 교화자로 피교화자인 무지한 사람을 일깨우는데 나혜석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당대의 대표적 계몽주의 작가 이광수의 소설과 비교해 보아도 춘원은 내포작가든, 서술자든, 인물이든, 혹은 서술 중개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텍스트에 침입하는 실제작가의 모습이든, 계몽주체의 객체에 대한 우위가 변치 않는다. 하지만 나혜석은 타자의 계몽에 덧붙여 자기 다짐이란 담화양식으로 남성중심사회의 반페미니즘 역풍과 신여성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다. 춘원의 민족개조론보다 나혜석의 신여성론이 덜 위선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음은 이러한 나혜석의 당위론적 세계관과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를 단편소설 「경희」에서 검토한 것이다.

2.1. 신크리시즘적 논쟁의 간접화

나혜석의 단편 「경희」(『여자계』 2호, 1918.3.)는 서정자 교수에 의해 처음 발굴, 소개되었는데¹⁷⁾ 소설적 기교가 매우 뛰어난 점에서 1910년대

16) *Ibid.* p.86.

17) 서정자, 앞의 책 p.286.

한국문학사의 큰 업적이다. 주로 가정의 여성 공간(안방, 부엌, 뒷마루……)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짙은 묘사는 당대의 문학적 기대 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또한 「경희」는 김동인이 그의 「김연실전」¹⁸⁾에서 매도한 신여성과는 대극적인 위치에 있는 긍정적 신여성을 제시한 것이 특색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서사물로서 긍정적 신여성상을 그려내는 데 있는 만큼 그 서사적 갈등의 동기화가 신여성/구식 여성의 대비와 상징계의 질서인 아버지의 법(결혼제도 따위)에 대한 신여성의 대응에 있다. 모두 4장으로 된 「경희」의 플롯을¹⁹⁾ 서사단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본 유학생인 경희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돈마님(경희 언니의 시어머니)이 찾아온다. 사돈마님은 경희더러 공부는 그만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할 것을 권유하나 경희 어머니가 경희의 지식과 기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손녀딸도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2) 경희집에 드나드는 떡장수는 여학생(신여성) 험담을 늘어놓으려다 경희가 집안일을 척척 잘하는 것을 보고 단념한다. 또 경희네 이웃집에 사는 수남 어머니도 경희의 민첩한 일솜씨와 자기 며느리의 비교를 통해 경희를 선망하고 하녀 시월이 또한 상전인 경희가 자기 아이에게 식구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 준 것에 감동한다.

(3) 아버지는 경희의 결혼을 서두르며 여성교육 무용론을 주장한다. 이들의

18) 김동인의 「김연실전」은 신여성의 부정적 측면을 그렸다고 해서 현재 여성문학연구자들이 작가를 비난하지만 H. 씨수스(Hélène Cixous)의 '남성의 타자인 여성'이 아니라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이란 관점으로 보면 주인공 김연실은 남성이 씌운 디스크스 체계를 남성에게 되돌려 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열규, 「문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4. 11. 25).

19) 플롯(plot)은 문제성 있는 단어이다. 곧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구상, 구성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수제/파블라에서 수제(sujet) 개념으로 후자를 취한다.

권유로 경희를 일본에 유학시켰지만 이번 귀향을 계기로 마침 좋은 혼처가 있어 기어이 결혼을 시킬 결심을 한다.

(4) 경희는 아버지의 일방적 결혼 강요에 반발하면서도 안락한 삶이 보장된 장래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며 신여성답게 살기로 다짐한다.

위와 같이 분절된 텍스트는 다시 전반부인 (1)·(2)장과 후반부인 (3)·(4)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신여성/구식여성의 대비에 주력하였다면, 후자는 딸/아버지의 남/녀, 세대차가 서사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차이를 보인다. 언뜻 보기에 스토리 라인(story-line)이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반부의 서사진행이 경희와 다른 여성들간의 관계에서 경희의 의도대로 신여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여성의 구식여성에 대한 우위를 초점화했다면 후반부는 요지부동인 아버지의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경희의 변민이 초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반부의 서사진술이 생기발랄한 경희의 외모처럼 톡톡 튀는 대화체로 표현하였다면, 후반부는 아버지의 횡포에 반발하고 고민하는 경희의 심리묘사를 그녀가 자문자답하는 식의 과격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 전·후반부의 언술상 차이는 주제의 불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담화가 사건의 인과성이나 시간적 계기성보다 공간적 병치를 통한 등가성의 원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병치법(parallelism)은 바흐진(Bakhtin)적 의미의 대화적 관계이다.²⁰⁾ 「경희」에서 병치법은 인물들의 대비에 의한 신크리시스(syncrisis)적 대화와 시점의 교체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먼저 인물들의 대비적 관계를 보자.

20) M.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d.), Caryl Emerson (Minnesota Univ. 1984), p.28. 바흐진에게 '대화'란 한 순간에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 상호작용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병치법·대위법은 그런 의미에서 대화적이다.

① “아이구, 무슨 장마가 그렇게 심해요” 하며, 담뱃불을 붙이는 뚝뚝한 마님은 오래간만에 오신 사돈마님이다.

“그러게 말이지요. 심한 장마에 아이들이 병(病)이나 아니 났습니까. 그 동안 하인도 한번 못 보냈어요.” 하며 마주앉아 담뱃불을 붙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마에 주름살이 두어 줄 보이는 마님은 이 이철원(李鐵原) 님 주안마님이다(「경희」, p.12).²¹⁾

② “이 더운데 작은 아씨 무얼 그렇게 하십니까?” 마루끝에 떡 함지를 힘 없이 놓으며 땀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억죽 엷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해서 엷고 알록달록 명주수건을 아무렇게나 쓴 나이가 한 사십 가량 된 떡장사는 으레히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을 들른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 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경희」, p.21.)

인용문 ①·②는 각각 단락 (1)·(2)의 서두인데, 이처럼 인물들의 질문/응답이란 직접대화로 서사적 출구를 여는 것은 작품 「경희」가 사건 중심이 아닌 논쟁을 전경화시키고 있음이다. 또한 단락 (3)도 아버지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다. 단락 (4)는 예외인데, 그것은 경희의 내면적 갈등이 주제이기 때문이고 자의식은 이미 대화적 관계이다.²²⁾ 그리하여 단락 (1)·(2)에서 신크리시스적 논쟁에 의해 대비되는 것은 신여성/구식여성의 차이이며, 그것을 통한 주제적 의도는 신여성의 우월함 드러내기에 있다. 또 이런 신크리시스적 대화의 특성상 언술은 매우 역동적이게 된다. (1)·(2)의 문체가 경쾌하고 발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신여성은 가치론적으로 우위에서 주변 인물들을 계몽시키고자 하는데, 구식여성들인 경희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식구들과 사돈마님, 수남 어머니,

21) 나혜석, 「경희」, 서정자 편, 『한국여성소설선』 I (잡인출판사, 1991). 본고는 여기 수록된 「경희」 텍스트를 인용하기로 한다.

22) M.M. Bakhtin, *Ibid.* p.58.

떡장수 등의 교화는 성공하지만 경희 아버지의 경우, 딸/아버지, 세대 차이와 남/녀 차이의 벽이 너무 두꺼워 미해결인 채 유보적이다. 물론 여성들도 처음부터 신여성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사돈마님도 곁으로는 짐짓 경희를 보러 안부차 방문한 채하나 신여성을 폄하할 목적성 방문이고, 떡장수 역시 떡을 팔러 돌아다니며 여학생(신여성) 협담을 많이 알고 있던 터라 경희가 그런 부류이리라 짐작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구식여성들은 가부장사회 남성들의 아니마로서 신여성을 질시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단락 (1)·(2)가 신여성/구식여성의 대비에서 신여성의 우위 확보로 매우 낙관적인 신여성의 이상을 제시했다면, 단락 (3)·(4)는 아버지의 딸에 대한 횡포와 딸의 아버지의 질서 전복이란 상충되는 가치들로, 대립에 의한 병치관계를 보여준다. 이때 딸이지만 여성이고 아버지이지만 남성인 두 사람은 혈연관계를 지탱하는 것보다 남/여의 사회적 정체성인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ue)들로서 경희의 신여성론은 아버지의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아버지는 경희더러 “아이 아니꼬운 년, 그러기에 계집애를 가르치면 건방져서 못 쓴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여성교육에 부정적인데 이런 사람이 아들(경희 오빠)이 권한다고 일본에 까지 경희를 유학시켰을까 싶다. 작중의 남성인물들은 경희 아버지와 경희의 신량감 정도인데, 후자는 문벌 있고 재산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만 있을 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작중에서 행동하는 유일한 남성인 아버지도 전직군수에 첩을 몇씩 거느린 경력이 있는 가부장사회의 전형적 남성이다. 그는 경희가 아버지와 정면대결에 버거워하는 데도 경희의 장점을 알면서 모르는 체하는 이중성도 있다. 이 같은 인물의 모순된 성격은 뒤에 「경희」의 담화론적 의도와 관련해서 다시 논의하겠다.

그러면 병치법 가운데 시점의 교체에 의한 대화성을 보기로 한다. 언술상 시점의 빠른 교체를 통한 병치법의 경우 다양한 인물들의 가치관을 병렬시키므로 당연히 언술들은 역동적이다.

① 경희는 ② 쇠귀에 경을 읽지 ③ 하고 제 입만 아프고 저만 오늘 저녁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자게 될 것을 생각하였다. ④ 또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답하여서 속이 불과 같이 탈 것, 자연 오랫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여 ⑤ 차라리 일체 ⑥ 입을 다물었다. ⑦ 더구나 ⑧ 이 마님은 입이 걸어서 한 말을 들으면 열 말쯤 거짓말을 보태어 여학생의 말이라면 어떻든지 흉만 보고 욕만 하기로는 수단이 용한 줄을 알았다. ⑨ 그래서 이 마님 귀에는 좀처럼 변명이라든지 설명은 조금도 끈이 들리지 않을 줄은 짐작하였다. ⑩ 그리고 어느 때 경희의 형님이 경희더러 ⑪ “애,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마라. ⑫ 더구나 시집 이야기는 일체 말아라. ⑬ 여학생들은 예사로 시집 말들을 하더라 아이구 망칙한 세상도 많아라. ⑭ 우리 자랄 때는 어디서 처녀가 시집 말을 해 보아 ⑮ 하신다. ⑯ 그뿐 아니라 여러 여학생 험담을 어디가서 그렇게 들고 오시는지 듣고 오시면 꼭 나 들으라고 빗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동생이 학생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듣기 싫더라. ⑰ 일본 가면 계집애 버리느니 ⑱ 별별 못들을 말씀을 다 하신단다. ⑲ 그러니 아무쪼록 말을 조심하라.” ⑳ 한 부탁은 받은 것도 있다(「경희」, pp.16~17).

위 예문은 단락 (1)의 일부분이다. 경희 언니가 경희더러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말조심하라고 주의시킨 것을 경희가 기억하고 사돈마님과 논쟁을 삼가기로 한 장면이다. 서술자의 발화(discourse of narrator) 속에 여러 인물들의 발화(discourse of character)가 중첩되고 있다. (이를 D·N 과 D·C로 약칭하겠다.)

곧 ①은 D·N 속에 D·C인 경희의 발화(②), ③④는 D·N으로 경희의 심리서술, ⑤는 경희의 발화로 서술자의 발화 속에 끼어든 대체 직접 화법(substitute direct-discourse), ⑥은 D·N, ⑦⑧⑨는 D·N이나 경희의 의식(심리서술), ⑩은 순수한 D·N ⑪⑫는 D·C로 경희 언니의 발화, ⑬⑭는 경희 언니의 발화 속에 끼어들 시어머니의 발화로 D·C 속의 D·C, ⑮는 D·C로 경희 언니의 발화, ⑯은 D·C로 경희 언니의 발화, ⑰은 경희 언니의 발화 속의 시어머니의 발화로 의사 직접화법(자유간접화법), ⑱ D·C로 경희 언니의 발화, ⑲ D·C로 경희 언니, ⑳은 D·N이다.

이를 다시 인물의 발화에 대해 경희 언니의 발화를 D·C₁, 사돈마님 D·C₂로 나타내면 위 인용문은

D·N [D·C₁ [D·C₂] D·C₁] D·C₂] D·C₁] D·N

과 같이 도식화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서술자의 발화인 D·N을 양측으로 i) 경희 언니의 직접화법 ii) 사돈마님의 직접화법을 경희 언니가 인용 iii) 경희 언니의 직접화법 속에 사돈마님의 직접화법이 끼어드는 시점의 전이가 통사론적으로 한 문장(⑩~⑳)인 서술자의 발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서술자와 서술대상, 초점 주체와 초점 대상의 빠른 교체는 텍스트 언술을 중첩시키기도 하고 대위법적으로 병치시키기도 한다. 이때 사돈마님의 신여성에 대한 험담을 당사자인 경희가 직접 듣지 않도록 경희 언니의 발화 속에 제시함으로써 신크리시스적 논쟁은 간접화된다. 정보 전달의 간접화로 사돈 사이의 예의가 민망하지 않게 내포작가가 배려한 것이다. 위 인용 ⑤⑥에서 보듯 경희 역시 사돈마님과 직접 논쟁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경희는 윗글 ②~⑨에서처럼 “쇠귀에 경 읽기” “제 입만 아프고” “답답해서 속이 불탈 것” “이 마님이 입이 걸어서”라고 표면상 말하지만 내포작가의 의도는 다른 데 있으며, 그것이 이른바 간접설득의 계몽효과라는 실제 작가 나혜석의 서사적 기교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재론하겠다.

또한 「경희」는 병치법 따위 공간지향형 담화구조이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얘기된 시간(erzählte Zeit)보다 얘기 시간(Erzählzeit)²³⁾이 매우 길다. 얘기된 시간이라야 경희가 일본에서 귀향 후 며칠간인 데 비해 얘기 시간은 단편치고 꽤 긴 편인 140장²⁴⁾(200자 원고지) 내외나 된다. 이와 같이

23) G. Muller의 용어로 스토리 타임/디스크스 타임에 해당.

24) 정순진 교수는 125장, 서정자 교수는 140장 내외라고 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서정자 교수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플롯을 이완시키며, 얘기 시간을 늘리는 것은 작품의 주제적 의도가 사건의 진행에 관심을 갖기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묘사에 치중해서 인물들의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텍스트 문면에 나타나는 인식동사 ‘알았다’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점과, 현재시제에 의한 보여주기(showing) 수법 같은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희」의 행위항 코드는 (인식이) 변하다/변하지 않는다의 대립이며 전/후의 시간징표가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시간원리는 이 작품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시간차원에서 경희의 변화는 일본 유학 전/후가 되고 다른 인물들의 그것은 경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서사적 초점인 까닭이다. 다시 말해 이는 내포작가가 경희라는 인물에 대한 성격 규정(characterization)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다.

2.2. 간접설득의 계몽 효과

앞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여성 경희가 주변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서사목적인 텍스트인데도 경희는 직접 논쟁하지 않는다.

계몽주의 시대,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저마다의 예리한 필봉을 휘둘러 설교투의 담론이 붓물처럼 쏟아지던 무렵, 그것이 아무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해도 식상할 법했다. 그것들은 이미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이른바 자동화된 ‘낮익은’ 언술인 것이다. 나혜석은 명민한 논객으로서 예술적 감수성을 가진 작가로서 계몽적 담론의 언술 한계를 인식한 사람이었다. 교훈성 있는 주제일수록 발화 형식을 고려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필자는 그녀가 수십 편의 시론을 쓰면서 단편 소설²⁵⁾은 겨우 몇 작품을 썼다 해서 논설을 위한 의장으로 소설의 도구

25) 나혜석은 장편소설도 쓴 것 같다. 필자는 이 구별의 앞의 책을 인용, 나혜석의 장편소설 『김명에』에 대한 광고기사가 잡지 『삼천리』에 실린 사실을 1999년 4월 27일 나혜석 바로 알기 제1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 그

화를 닮을 일이 아니라 그의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소설 아니고는 표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이 정보 전달의 간접화, 간접설득의 계몽효과이다. 경희는 실제 작가 나혜석의 허구적 형상인 만큼 누구보다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탁월한 당대 논객 나혜석답게 논쟁할 만도 한데 직접 논쟁에 가담하지 않는다. 사실 경희는 논쟁에 뛰어들고 싶어 “입술이 간질간질”하였지만 “속으로” 주변인물들의 말을 예상하며 “차라리 일체” 입을 다문다. 대신 작가는 경희와 주변인물들의 대비를 전제로 그들끼리 논쟁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들의 발화를 통한 모티프들의 수렴으로 긍정적 신여성상인 경희라는 인물의 입상화에 성공한 것이다. 필자는 이를 신크리시스적 논쟁의 간접화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정보전달의 간접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점의 교체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단락 (1)에서 사돈마님은 내심 신여성을 폄하할 목적으로 먼저 경희의 손이 거칠다고 타박을 준다. 이에 대해 경희 스스로는 살결이 본래 거칠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나 경희 어머니는 유학 동안 제 손으로 빨래며 밥을 해 먹느라 그렇다고 해명함으로써 신여성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다시 사돈마님은 경희더러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안락하게 살기를 권유하자 경희는 직접 반박하지 않고 독백으로 대응한다.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예요. 당신처럼 영감, 아들 간에 첩 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예요……” 하고 싶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싶었다(「경희」, p.16).²⁶⁾

심포지엄에 참가한 나영균 교수(나혜석의 조카딸)로부터도 이 원고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나 교수의 부친 나경석 씨의 반대로 출판되지 못한 이 원고는 6·25 때 없어졌다고 한다.

26) 여기서 사용된 꺾따옴표는 현대문법에선 직접화법 기표(signifiant)이나 개화기 소설에선 구분없이 두루 쓰인다.

무지=죄에 비유하며 교육을 강조하는 경희에게 대립하는 사람들은 사돈마님과 '이모님·큰어머니·할머니'이며 경희와 동일시되는 사람은 어머니와 시집간 언니·올케언니·시월이 등이다. 이어 경희가 바느질을 할 줄 아는 걸 보고 사돈마님이 놀라워하자 경희 어머니가 경희의 재봉틀 솜씨며 그것으로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등 경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자꾸 들려준다. 사돈마님은 경희 어머니의 얘기를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다가 점차 '반신반의'하던 끝에 드디어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리하여 내포작가의 신여성관이 주인공 경희의 직접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희 어머니와 사돈마님의 토론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다만 구식여성들의 신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재봉틀로 대유되는 기계문명과 해외(일본)유학생 우대, 근대 지식생산이론의 도구적 지식 습득 따위에 기인하는 것은 훗날의 근대비판이 직면하게 될 과제로 지적되어야 할 줄 안다. 이를테면, 근대가 서구에서 주체·자아·합리성 등으로 인간이성을 신뢰하고 평등의 이상을 가져왔지만 그들의 근대 담론 속에는 반이성적 사람들에 대한 지배 프로젝트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근대 서구제국은 원주민의 전통·관습은 역사적 진보라는 냉혹한 흐름 앞에 강제로 굴복시키면서 근대 민족국가의 기술적 진보가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²⁷⁾이 소설 「경희」에서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대가 평등사상을 주장했다지만 여성을 배제한 채 인간=남성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희 어머니가 신여성 딸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성교육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그 교육의 목적이 경제적 이윤 추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성의 권리가 경제적 자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작가의 통찰력은 예리하지만²⁸⁾ 돈 얘기는

27) R. 펠스키, *Ibid.* pp.39~40.

28) 이구열, 앞의 책, 나혜석, 「영국인」, p.154. 나혜석은 영국에서 여성운동가

경희 어머니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신여성=근대교육=자본주의 결속의 등식관계를 일반화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들 패러다임을 적시하기엔 나혜석의 계몽주의 낙관론이 우세하였고, 그것이 과도기 작가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한편 경희 어머니가 사돈마님에게 경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부지불식중에” 경희 월급을 말해 버린 것을 두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여기까지” 돈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했다가, 뒤에 가서 “사돈마님 앞에서 부지중 여기까지 말을 하는 김부인의 태도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도 없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라고 말한다. 이는 서술자가 경희 어머니의 무의식과 의식의 틈새를 인지하면서도 경희 어머니보다 내포작가의 신여성 우월감에 동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이다. 즉 인물의 인식논리보다 서술자의 인식논리가 상위에 있는 것으로 계몽주의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무튼 「경희」에서 정보전달의 간접화는 단락 (2)에서 떡장수의 대화 속에서 경희의 부지런함, 가사노동과 독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신여성의 모습, 서술자 요약에 의한 수남 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그와 대조적인 경희의 유능함, 하녀 시월의 눈에 비친 경희의 낙천적 태도, 그녀의 아들에게 경희가 선물한 것, 시누이와 올케간의 화목함……, 그리고 단락 (3)에서 경희 어머니가 초점 주체가 되어 초점 대상 경희의 일본 유학이 우려되는 달리 성공적임을 암시한다. 아버지가 경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희 어머니는 유학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다고 전해준다. 또 “그 전, 이전, 이제까지/이번, 이제부터”와 같은 시간 지시어가 서사 진행 목적이 아닌 유학 전/후의 경희의 발전된 모습을 차이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경희의 다락방, 벽장 청소는 단순히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것이라기보다 낡은 제도, 구식 청산 따위를 은유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단락 (4)에서 정보의 전달의 간접화는 경희가 결혼문제를 놓고 아버지

팡크하스트 여사와의 대담에서, 여성의 제1조건이 경제적 자립이란 말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 점을 정순진 교수도 지적한 바 있다(정순진, 앞의 글).

와 정면 충돌했던 장면을 초점 주체인 경희의 인용어법으로 제시되는 부분이다.

① 아아 잘못하였다. 왜 아버지가 “정하자” 하실 때에 “네” 하지를 못하고 “안 돼요” 했나, 아아 왜 그랬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나! 그런 부귀를 왜 싫다고 했나(『경희』, p.37).

② 어찌하려고 그런 대답스러운 대답을 하였나 하고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때에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하던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담뱃대를 드시고 “뭐 어찌 어찌, 네까짓 계집애가 하긴 무얼해. 일본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귀한 돈 없애고 그까짓 엉뚱한 소리만 배워가지고 왔어?” 하시던 무서운 눈을 생각하며 몸을 흠뻑한다(『경희』, pp.37~38).

③ 아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블리 떡 다 죽지 않았니?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대답하였다(『경희』, p.41).

인용문 ①은 아버지에게 부잣집으로 시집가기 싫다고 해놓고 후회하는 경희, ②는 아버지가 여자의 도리를 일러줄 때 그런 것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여자도 남자와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장면, ③은 고민하던 경희가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자기 주장을 했다는 고백이다. 발화형식상으로는 서술자의 발화와 인물의 발화로 뚜렷한 선을 유지하지만 서술자의 발화가 인물의 발화를 닮아 아버지의 발화에 대한 직접화법 외엔 모두 다 경희의 언술로 간주된다. 위 인용 부분은 갈등하는 경희의 회상에 의해 아버지와 정면 충돌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아버지에게 말

대꾸하는 장면이 경희의 간접화로 내포독자에게 전달되는 양상이어서 경희가 감히 아버지에게 대드는 현장을 독자가 직접 목격하는 건 아니다. 백년 전의 양반가문 딸들이 아버지 면전에서 ‘아니오’를 말하기란 경희 같은 용감한 신여성도 “벌벌 떨며”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父/女の 정면대결이란 참담함을 피하려는 내포작가가 당대 독자의 윤리적 기대 지평에 부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것은 경희가 여성 인물들의 교화에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미완인 채 유보적인데, 그만큼 가부장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요지부동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 역시 경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아이 이번에는 꼭 해야지……” “아니 듣거든 물을 것 없이 곧 해버려야지……” “내일은 세상 없어도 하여야지” 하는 식으로 경희의 결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가부장사회의 전형인 그는 여성교육 무용론을 주장하며 “아이 아니꼬운 년, 그러기에 계집애를 가르치면 건방져서 못 쓴단 말이야……” “계집애가 공부는 그렇게 해서 무엇해?……”라고 말한다. 경희를 일본으로 유학 보낸 것은 아들의 권유 때문이었지만 경희가 신식교육으로 나쁜 데로 빠질까 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와의 갈등을 예시하는 복선이 단락 (1)에서 아버지 사고 팔기란 에피소드이다. 경희가 귀향 후 뒷마루에서 오라버니댁과 화기에애하게 바느질을 하며 일본 유학생 활의 이모저모를 서술자 요약으로 전달하는 가운데 일본 영화에 관한 것이 있다. 곧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장난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집 대문에다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써 붙이는데, 이것을 본 고아 오누이가 가진 돈 두 푼으로 아버지를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비록 철없는 어린 오이디푸스의 행동이지만 당돌한 주제이다.

이 에피소드는 경희 오라버니댁과 시월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텍스트 중간에 또 한번 독촉을 받지만 끝내 예기의 결말은 보여주지 않아 내포독자의 궁금증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는 그 예기의 결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환기되는 경희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거리화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경희와 아버지는 감정적 거리가 대치 국면인 채, 경희는 여성 교화에 성공하나 남성(아버지) 계몽은 유보상태에서 자기 다짐을 거듭한다.

2.3. 당위론적 세계관과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

계몽주의 소설이지만 계몽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간접 설득의 계몽효과로 「경희」가 추구한 것은 ‘있는 세계’가 아닌 ‘있어야 할 세계’, 당위의 문제이다. 신여성이란 화두가 염상섭의 「해바라기」(1923)에서 김동인의 「김연실전」(1939)에 이르기까지 근 반세기 동안 가부장사회 남성들의 조소거리로 주변화되고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키웠지만 「경희」는 그런 부정적 여성상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상형 인물이다. 경희는 지식과 기예를 갖춘²⁹⁾ 데다 건강하고 자립심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성취욕구도 강하며 주체적이다. 그녀는 존엄을 아껴쓰며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자유주의자요 미적 감수성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발랄하고 유머가 있는 여성이다. 그녀는 집안의 구석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도 예술적으로 잘 배치하며 무엇보다 일본 유학생이고 기계문명을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녀의 인간성은 동정심으로 따뜻하다.……한 마디로 경희는 속물적 허영심에 찬 사이비 신여성이 아니라, 신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고 있는 여성이다.

나혜석이 「경희」에서 제시한 긍정적 신여성은 주인공 경희의 개인적 자질이지만 동시에 작가의 이상이어서 이 텍스트를 교훈성 담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희 같은 여성은 현재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마땅히 존재해야 할 여성이다. 곧 작품 「경희」의 내포작가는 당위론적 세계관을 가졌으며 존재론과 당위론의 마찰이 당연히 텍스트의 갈등을 이루는 서사소(narrativity)이다.

29) 전미정, 「나혜석의 삶과 문학」,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 비평론』(개문사, 1995), p.349.

있어야 할 당위를 위해 경희는 동분서주하고 어느 정도 그녀의 노력은 성공을 거둔다. 그것이 텍스트 단락 (1)·(2)에서 보여준 구식여성들의 인식변화로 신여성 경희의 역량이다. 그는 천사증후군(angel syndrome)³⁰⁾도 보인다.

머리를 숙이고 골몰히 칼질하던 경희는 이미 아주머니의 설움의 원인을 아는 터라 그 한숨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찌르르 하도록 동정이 간다. 경희는 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힘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하였다. 경희는 꺾춤 뛰다(「경희」, p.26).

위에 인용한 예문은 수남 어머니의 게으르고 무능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동정하며 경희가 조선의 불행한 가정을 위해 자기 사명을 다짐하는 부분이다. 경희의 천사증후군이 드러난 부분인데, 하지만 경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치 않다. 내포작가도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경희가 꿈꾸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결코 불행한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자가 요약한 수남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시어머니는 구식여성이지만 착하고 희생적인데, 며느리는 ‘젊은(新)’ 여성이지만 무식하고 우둔해서 시어머니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는 원수” 같은 여자이다. 물론 경희는 착하고 헌신적인 여성도, 무능하고 게으른 여자도, 나이에 상관없이 구식여성으로 신여성에 의해서 교화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경희가 교육받은 여성으로 남자와 똑같이 무슨 일이든 할 수

30) 나혜석의 소설 「희생한 손녀에게」에서 화자인 동시에 주인공은 손녀로 명명된 수화자에게 천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있다고 생각해도 아버지는 혼기를 놓치면 결혼 못할까 봐 경희에게 당장 결혼할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딸과 아버지는 부딪칠 수밖에 없다. 경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경희의 앞에는 지금 두 길이 있다. 그 길은 희미하지도 않고 또렷한 두 길이다. 한 길은 쌀이 곳간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밟기도 쉬운 황토(黃土)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짚어야 겨우 얻어 먹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 주어야 겨우 몇 푼 돈이라도 얻어보게 된다.……(『경희』, p.35).

서술자의 발화인 이 부분은 탄탄대로/꼬부라진 길의 비유로 전자가 부자와의 결혼으로 보장된 안락한 생활이라면 후자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 당할 불이익인 가난·천대·사랑없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 앞부분에서 경희가 선진기술의 재봉틀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여준 것과 모순된다. 사돈마님 같은 험담가도 경희의 경제적 능력에 감복해서 자기 손녀까지 교육시키겠다고 결심한 터에 결혼 여부에 행/불행이 달려 있다는 서술자의 언급은 그의 인식과 인물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발화 주체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내포작가가 신여성을 긍정하겠다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는 중간항이 없는 것은 당대의 이분법적 사고체계³¹⁾와 관련된다 하겠다. 이는 누구도 자기 시대의 소통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담화의 속성인 까닭이다. 달리는 실제작가 나혜석이 가부장사회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신여성론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논리의 단순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법은 경희에게 “동철투구를 들썩운 것같이” 짓눌러

31) 신식/구식, 개화/완고 따위 개화기의 편가르기 코드 체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론한 바 있다. 이계선, 『개화기소설연구』(일조각, 1972).

경희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마친 뒤에 하겠다는 말을 “벌벌 떨며” 아버지에게 “(지금 당장은) 안돼요”라고 했을 뿐이다. 그것도 텍스트에서 아버지와 마주 대면한 현상이 아니라 경희가 초점 주체가 되어 아버지의 직접대화를 인용한 간접화된 정보로 내포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 시대 양반가문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할 수 없다는 독자들의 윤리적 기대지평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간접화된 정보로 텍스트가 교훈성 담화인데도 노골적 설교투가 아닌 계몽효과를 거둔 점은 위에서도 얘기한 바 있다. 서사진행상 아버지에 대한 설득은 아직 유보적이다. 이에 따라 경희는 구식여성들이 자의식 없이 결혼해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이구 어찌하나”를 동어반복으로 연발하며(텍스트 문면에 7회 이상 발화되고 있다.) 자기 존재를 “지팡이 맞은 뱀, 장난감, 백지 한 장 따위” 오그라든 몸으로 위축시키기도 한다.

마침내 경희는 격렬한 내적 갈등과 방황 끝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 곧 “땀싸리 그늘 밑의 개·까치·배나무·절구” 같은 사물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자신도 그런 개아적 존재임을 자각한다. (이 부분은 작가의 사물에 대한 치밀한 묘사가 돋보이는데 나혜석의 글들은 화기여서 그런지 시간속에 변하는 사물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솜씨를 보인다. 그녀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드디어 경희는 “그렇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한다. 사람답지 못한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고 자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처절한 내면갈등 끝에 자기긍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경희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노력한 대가로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먹는 사람이며 부모의 유산으로 먹고 살거나 노예처럼 타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경희는 노동윤리의 건설함도 보인다. 자신감을 회복한 경희는 기어이 자기존재의 변증법에 이른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宇宙) 안 전 인류(人類)의 여성이다. 이 철원 김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오나, 사람이다(「경희」, p.42).

위 인용문은 서술자의 발화이지만 토막 문장과 빠르고 격렬한 어조로 보아 경희의 독백에 가깝다. 서술자가 경희의 발화에 이끌린 서술독백인데 흥분한 경희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듯 매우 박력 있는 문체이다. 이 같은 자기과시의 고백은 서사소통상 독자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서사성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소설에 대한 장르의식이 미비한 데서 야기된 개화기 문학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이 하나의 서사양식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 개화기의 이른바 고백체 소설이며, 이는 급변하는 과도기 현실의 충격을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작가들의 소극적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희」의 결말이 ‘자기 드러내기’³²⁾의 고백에 이른 것도 이러한 당대의 문학적, 문화적 풍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백은 나약해 보이는 몸짓 속에서 주체로서 존재할 것, 지배할 것을 목표로 하는 권력의지의 또 다른 표현³³⁾인 한, 경희의 자기 다짐, 자기 확신의 언술 자체가 개아의 함몰이 아닌 주체성 인식으로 신여성의 기표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하여 경희는 여성적 자아로서,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확대를 “늘어난 몸, 커진 눈……”과 같이 육체의 팽창에 비유하며 감격해 한다. 특히 커진 “눈(目)이 얼굴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그녀의 시야가 넓게 트임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오관에 호소하는 실감나는 묘사로 자기 존재의 위축과 확장을 경험하는 경희를 통해 작가는 여성해방이란 있어야 세계를, 당위론적 세계관으로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다.

32) 박철희,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환상과 현실」, 『한국 근대문학의 쟁점』(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3)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1997), p.116.

이상에서 나혜석의 「경희」를 담화론적으로 읽어 보았다. 그의 당위론적 세계관과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는 나혜석의 다른 소설에서도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다. 가령 「희생한 손녀에게」(『여자계』, 1918.7)에서의 격정적 자기현시의 내면 고백, 「원한」(『조선문단』, 1924.4)에서 충격적 욕설의 순환구조, 「현숙」(『삼천리』, 1936.12)의 객관적 투사에 의한 계약결혼 주제 등이 나혜석이 추구한 있어야 할 세계로서의 신여성의 당위론적 세계관과 그것을 확신하는 자기 다짐의 담화인 것이다

아직 나혜석 소설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R. 바이만(Robert Weimann)은 “하나의 텍스트가 가장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은 그 최소한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가능한 넓은 문맥에서이다”³⁴⁾라고 말한다. 텍스트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적 읽기가 강조되는 이유일 것이다. 1910년대의 나혜석을 두고 현대 전문작가의 개념으로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녀가 시·소설·수필·논설·희곡 등 문학 장르를 망라한 모든 글쓰기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시대의 모순에 대응하려 한 것 때문에 그녀의 텍스트들에서 사회성이 심미감을 압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심훈이 시 「그날이 오면」 단 한 편으로 세계 참여시인 반열에 오른 것처럼 나혜석은 이미 발굴된 소설 4편 가운데 「경희」만으로도 훌륭한 소설가의 이름에 값한다고 본다.

3. 맺음말

나혜석 소설의 담화논리는 가부장사회에서 갈등하는 여성문제의 인식과 여성해방의 당위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자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에서 나혜석은 신여성/구식여성의 대립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곧 신/구의 시간징표가 신여성 : 당위/구식 여성 : 존재의 가치관으로 대비되면서 텍스트 의미를 생성하는 담화구조

34) Susan S. Lanser, *The Narrative Act*(Princeton Univ. Press, 1977), p.77

인 것이다. 이는 개화기 엘리트들이 개화=선/구습=악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체계에서 당대의 담론을 주도해 갔던 현실문맥적 상관성이기도 하다. 누구도 자기 시대의 소통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담화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바로 그같은 담화론적 입장에서 나혜석의 소설 「경희」를 독해해 본 것인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희」는 한국 현대문학사상 1910년대를 대표하는 페미니즘 텍스트로서 소설적 결구의 뒤틀림에서도 당대의 문학적 기대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② 「경희」의 서사적 갈등의 동기화는 신여성/구식여성의 대비를 통해 긍정적 신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가부장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데 있다.

③ 「경희」는 신크리시틱적 논쟁과 다양한 시점의 교체, 능숙한 일상어의 구사로 매우 역동적인 언술을 보여준다.

④ 「경희」는 가정의 주로 여성 공간인 안방·부엌·뒷마루에서 일어나는 사건(domestic affairs)을 소재로 인물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묘사중심의 소설이며 병치법에 의한 공간지향형 담화구조이다.

⑤ 「경희」는 교훈성 담화이지만 정보전달의 간접화로 노골적 설교투가 아닌 간접설득의 계몽효과를 거두고 있다.

⑥ 「경희」는 여성의 일상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더불어 당위론적 세계관과 자기 다짐의 담화논리로 신여성의 입상화에 성공한 작품이다.